
신년사



정 상 훈

- 월간 고시계 발행인
- 도서출판 고시계사 · 미디어 북 대표
- 법무경영교육원 원장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이제 2017년도 한 장 남은 달력을 가만히 쳐다보며 지난 한 해를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 달력의 며칠만 더 지나면 새로운 해인 무술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해를 마감하면서 후회와 반성이 대부분이고, 잘하였거나 행복했던 기억들은 별로 생각나지 않습니다. 모두들 현 시대를 잃어가는 해안과 좌고우면하지 않는 나름대로의 소신으로 당당하고 멋있게들 살고 싶었는데, 이루지 못한 소망에 대한 아쉬움만이 가득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것들이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평범한 일상의 보통 사람들의 일과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도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최근에 한국갤럽이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70%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취임 6개월을 전후한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높았던 대통령은 김영삼 前 대통령(83%)뿐이었습니다. 대통령에게 이런 높은 지지율은 때로는 커다란 정치적 자산이 됩니다.

금년을 마지막으로 70년의 역사를 가진 「계층이동의 사다리」와 「공정한 경쟁」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제도 중 하나였던 사법시험이 드디어 역사에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사법시험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이미 국민의 공론화가 된지 오래 되었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사법시험의 부활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 동안 수 없이 지적받아왔던 로스쿨의 고비용, 연령차별문제, 출신대학별 차별 문제, 선발방식의 부정과 편법 등등은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관검사 임용과 거대 로펌의 채용 또한 불투명·불공정하다고 많은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법조권력까지 대대손손 되물림되는가 하는 강한 의구심도 가지게 됩니다.

지금 세대도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다고 믿어요.” 히스패닉 최초, 여성으로는 세 번째로 미국의 연방대법관이 된 소니아 소토마요르의 목소리입니다. 소토마요르의 희망의 자서전(원제: My Beloved World)에서 ‘개천에서 용이 나는 스토리’에 관심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푸에르토리코 이민자의 자식으로, 7세 때에 소아당뇨 진단을 받고 지금까지 매일 인슐린을 투약하며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수인종에 여성, 불치병에 걸린 뉴욕 브롱크스 출신의 가난한 그녀가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본주의의 천국 미국에서도 능력만 있으면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8년 무술년 새해에 오늘을 사는 우리 국민 모두가 원하는 것은 공정사회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자신이 노력한 만큼 인정받고자 하는 것 입니다.

취임 반년이 지난 문재인 정부의 국민지지율은 여전히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이 전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오만한 불통에 대다수의 국민들은 서민의 눈높이를 문재인 정부와 함께 하기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부디 문재인 정부에서는 미래를 꿈꾸고 도전하고자 하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희망의 의지를 가지게 하는 문재인 정부가 되었으면 바랍니다.

지난 63여년 간 창간 이래 애독자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를 이끌어갈 동량을 키워내는데 일조하겠다는 당사의 설립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해보며, 앞으로도 변호사시험, 5급 공채(행정고시), 입법고시, 법원행시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의 아름다운 동행이 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무술년 새해에는 큰 꿈을 향해 뛰어 목적을 달성하는 여러분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으며, 맥내에 건강과 평강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